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연구

권 기 영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A Study of the Symbolic Meaning of a Bisexuality in Costume

Gi-Young Kwon

Instruct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2. 5. 14 접수 : 2002. 11. 30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symbolic meaning and the values of the costume which express bisexuality through the definition from a culture point of view. The research method is to contemplate the documentary records such as world history, art history and clothing history, and to recognize the symbolic meaning of a bisexuality in modern fashion design. A definition the word 'man and woman' restricted the human being for a long time. This restrict is enforced by the costume, but this traditional fixed idea is retarded by the liberal sense of the human being and the design expresses a sex ambiguity. This study inspects the sex ambiguity and the meaning of that through a cultural background and a historical costu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the cultural background about bisexuality is classified into the etymological point, the mythologic point, the art and philosophical point,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the mass media, and the costume and the regulation. A bisexuality is a concept in existence from ancient times, we have an open-minded attitude about bisexuality in the present than the past. The second, the function of costume is sex classification before 20th century, but since 20th century the costume expresses sex ambiguity.

The third, the symbols of the bisexuality are the interminancy, the unity and the dismantling. The costume which expresses bisexuality means coexistence of male sex and female sex, this is a kind of motion to embody a ideal body of the human being.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recognize the dignity of human body and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modern society.

Key words : bisexuality(양성성), symbol(상징), interminancy(불확정성), unity(통합성), dismantling(해체성).

I. 서론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지금, 현대인들은 기존의 가치구조와 삶의 태도 등에 있어 다차원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규범과 관습, 그리고 사고방식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데, 이는 현대사회의 다원화되고 중첩된 가치관의 이상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회화, 조각, 실내, 건축, 패션, 외부환경 등이 서로 상호 침투되어 다양성과 복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과론에서 우연성의 원리로, 이분법적 일원성에서 단일적 다원주의로, 순수주의에서 절충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술분야에서도 탈경계, 탈영역 등 모든 예술적 상상과 개념들을 포괄

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서 인터미디어(intermedia) 예술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새로운 관념들의 정립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은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 정체성의 혼란은 세기말의 불안한 심리와 사회정치적 남녀 역할 변화의 추이에 따른 것으로, 현대인의 의식과 생활방식, 영화, 광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트랜스 젠더나 동성애 등에 대해 과거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필라델피아', '아이다호', '패왕별희' 등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확대된 사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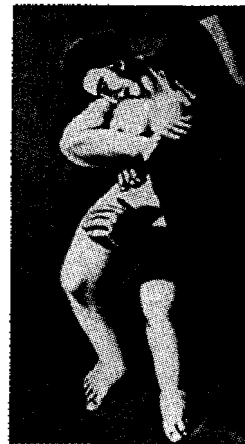
현 사회를 반영하는 광고 역시 오늘날의 성 정체성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림 1>의 Van Gils 라는 남성복 광고는 남성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자가 입어도 남자처럼 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¹⁾ 이 외에도 담배와 주류 등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품목의 광고에서 여성 CF모델을 기용하는 등의 현상은 오늘날 성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중매체 속의 광고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여성복 착용은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을 어긴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판되어지고 금기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일종의 유희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에서 다루어지는 양성성은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세레자 요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초현실주의는 현실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성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시각을 보인다. <그림 2>의 마그리트의 작품은 여성의 신체 속에 내재해 있는 남성이 여성을 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남녀 양성성의 혼재를 화폭에 담고 있다.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대에는 남녀복식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중세 시대는 종교의 영향으로



<그림 1> 남성복 Van Gils 광고.
(LG패션 유엔드아이, p.29)



<그림 2> Rene Magritte, 「The Titanit Days」, 1928.
(Fashion and Surrealism, p.92)

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어 복식에서 성적인 특징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육체의 관능성과 성적 욕망에 대한 관심으로 복식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바로크 시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과도한 장식을 사용함으로써 성적으로 모호한 이미지를 주었으며 로코코 시대의 복식은 남녀성을 각기 존중하면서도 우아하

1) 최병광, 광고, 「20세기 인간을 비추는 거울-남자? 여자? No!」, LG패션 유 엔드 아이 여름호 통권30호(1999. 5), p.29.

고 화려한 당시의 미의식을 남성복에도 가미하였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복식에서 귀족과 시민의 구별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복식에서 보이는 성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후 왕정복고 시대, 나폴레옹 3세 시대를 거쳐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는 우미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마가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었고 남성은 사회에 진출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의상을 착용하며 남성의 능력이 중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이전에는 중세시대의 성을 폐하기 위한 의복과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에서 보여지는 여성적인 경향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틀에 박힌 성 개념이 붕괴되면서 남녀 복식에서 성의 구분은 과거보다 그 의미가 줄게 되었고, 양성적인 복식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가 된 것은 산업혁명과 제 1, 2차 세계 대전으로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와 경제적 자립은 여성복의 남성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미추구 현상이 남성에게도 확산되었다.

의복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성의 불일치와 혼재는 외면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 사회인류학적 관점 등에서 볼 때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이 한 사회의 가치관과 이상을 대변해준다고 볼 때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신체라고 생각되어지는 패션모델들의 신체와 의복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중성적인 이미지 즉 양성이 혼재되어 보여지는 모습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복식에서 보여지는 양성성의 표현을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체계와 현대사회의 제 가치관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의복은 인간의 몸을 이루는 한 구성요소로서 일종의 기호라 할 수 있는데, 양성성을 표현한 패션 디자인이 어떤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또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인체를 감싸는 복식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성 표현의 상징적인 분석은 현대에 와서 인간신체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로, 성의 혼재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류평등, 고정관념 탈피, 다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현 사회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서양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여지는 양성성과 20세기 이후 양성성의 출현에 영향을 준 철학사조와 각 시기별 복식을 범위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세계사, 문화사, 미술사, 서양복식사 등 관련문헌들을 참고하여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인 이슈가 양성성의 출현에 미친 영향과 성적 모호성을 보이는 복식의 상징체계를 분석하였고, 1990년대 이후 발간된 패션잡지를 통해 양성성의 특징을 보이는 복식을 분석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성성의 어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 관념에 대해 반기를 든 양성성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으며, 문화사적으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성성에 대한 학설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앤드로지니(Androgyny)는 두 가지 성적 속성을 지닌 신화적 존재를 뜻하는데, 그리스어의 어간 (Andre)와 긴(Gyn)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며 원초의 완전성, 반대물의 합일, 무제한적인 상태, 자율성, 되찾은 낙원, 남녀의 원초적 힘이 재결합됨을 상징한다. 양성구유, 자웅동체를 뜻하는 앤드로지니는 남녀 양성이 조화되고 융합된 인간형으로 기존의 성개념을 초월했다 해서 제3의 성이라고도 부른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라는 단어는 '나누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동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단어가 의미하듯이 남녀 양성은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왔다. 남성의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특질과 여성의 소극적이고 유연한 특질들은 근대 산업사회의 직업분화 및 전문화에도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짓는 과정에서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긴 성질들을 여성에게 부여하였다.

앤드로지니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 호모섹슈얼리즘은 그리스어로 '같다'라는 의미의 'homos'와

라틴어로 '나누다'는 의미의 'sex'가 합쳐서 생긴 말로 동성의 상대방에게 성적인 매력과 감정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²⁾ 이것은 서로 양분화된 가치의 공존인 듀얼리즘이 극단화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기말적 가치와 함께 새로운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서구에서 양성성이란 단어의 기원³⁾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원래 인간의 성은 지금과 같이 둘이 아니고 남성, 여성, 그리고 이 둘의 결합체가 존재하여 셋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남녀의 성기를 둘 다 몸에 지닌 남녀 양성인은 커다란 힘을 갖고 있었기에 이에 위협을 느낀 제우스가 이 둘을 쪼개 힘을 약화시켰고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원래 한 몸이었던 서로 다른 자신의 반쪽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은 대립관계이면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융화될 수 없는 성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함께 포함하는 중간적 존재가 있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 애매모호하고 중간에 걸쳐 있는 사회적 범주가 신성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⁴⁾하면서 그 예로 고대 그리스에서 남녀 양성을 신으로 숭배한 사실이나, 신화에서 양성기를 소유한 신으로 반남반녀(Hermaphroditos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결합) 상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그리스 신화에서 혼돈과 암흑은 중성으로서 양성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우스 신과 헤라클레스 신은 흔히 여장을 하곤 했다는 것에서 의복 도착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남성 신인 디오니소스는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이처럼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신들이 양성성의 특질들을 가진다는 점에서 양성성이란 완전성 또는 전지전능함과도 상통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 남녀추니, 17세기.
(세계문화상징사전, p.15)

남녀추니는 원초의 완전성, 완전체, 반대물의 합일, 무제한적인 상태, 자율성, 되찾은 낙원, 남녀의 원초적 힘이 재결합됨을 의미하며, 남녀의 모습, 또는 왕의 얼굴과 여왕의 얼굴이 같이 붙은 두 얼굴의 모습, 붉은 색의 남편과 흰색의 아내 등으로 상징된다. 〈그림 3〉은 미리우스의 17세기 연금술서, 「철학의 개혁」속에 들어 있는 남녀추니의 그림인데, 여기에 묘사된 여성원리와 남성원리의 합체는 연금술의 목표, 즉 인간이 끊임없이 정진하는 노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머니즘이나 여러 통과의례에서는 이성의 옷을 입는 옷 도착증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는 그 옷을 본래 입었던 사람이나 이성의 성질 및 특징과의 동일화를 나타내며 원초의 혼돈으로의 회귀를 상징한다.⁵⁾ 또한 재생에 앞서는 죽음의 상징으로서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엘리아데는 의복교환이 원초적인 낙원의 조건 속에 재통합하려는 의지로서, 의례적 변형을 통해 인간은 주기적으로 완전한 인간의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인도 힌두교의 시바신은 몸의 반쪽은 남성, 나머지 반쪽은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결합하여 성적으로 양면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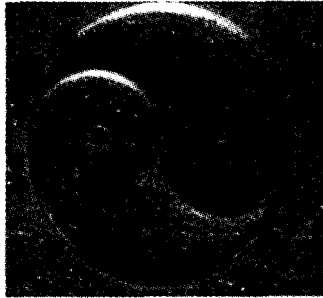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음은 원초적, 수동적, 여성적, 본능적, 유연성, 추위, 어둠, 습기 등을 뜻

2) 채금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1999. 5), p.40.

3) Anthony Symott, *The Body Social* (London:ROUTLEDGE), p.41.

4) 이선영, 조형적 성-양성 이미지, *미술세계* (1999. 10), p.124.

5) 진쿠퍼 저,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까치, 1994), p.14.



〈그림 4〉 태극, 중국, 17세기.
(세계문화상징사전, p.460)

하고 양은 활동적 원리이며 혼, 합리성, 남성적, 능동적, 더위, 밝음, 건조, 굳음 등을 나타낸다. 음양의 상징인 태극은 우주에서의 두 가지 힘의 완전한 균형을 나타내는데, 〈그림 4〉는 17세기 중국의 벼루에 새겨진 장식으로, 양과 음이 합쳐진 태극은 지고의 불가분의 상징형태로서 완전성과 전우주의 대립물의 창조적인 상보성을 나타낸다. 태극은 전체로서 원초의 남녀추니, 완전한 균형과 조화로써⁶⁾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가 상호작용하여 우주삼라만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의 이원성은 우주적인 관계와 힘을 표현하는 오랜 양식으로 남녀 양성에서 비롯된 상징주의는 보편적인 문화적 코드로서 수많은 문화 속에서 발견된다.⁷⁾

2. 양성성의 출현배경과 특성

1) 양성성의 출현배경

성이란 인간 모두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그 양태는 욕망의 사회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더구나 욕망의 사회화에 있어 정치적 이해와 결부되어 조작되는 수많은 성의 이미지들은 사회의 특정 현상을 떠나 해석될 수 없다.

원사사회에는 남녀 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분명한 사회에 비해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근대 이

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은 더 심해졌고 여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들은 엄격하게 여성의 삶을 얽매어 왔다. 성도덕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데, 19세기 들어와 부르주아 계층은 하층계급의 문란한 남녀관계에서 그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엄격한 성도덕을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성향은 육체와 성 관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여성은 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존재로서 남성=문명, 여성=자연의 이분법적인 사고전통에 따라 생식과 에로티시즘을 의미하는 성은 당연히 여성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에 남성-여성 관계가 지배-피지배 관계로 고착되면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되는 존재인 여성은 예속과 추방의 도덕적 굴레로서 성을 홀로 떠안게 되었다.⁸⁾ 이는 사회학적인 성인 젠더(gender)를 구분지으면서, 남성=문명, 여성=자연이라는 사고아래 남성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성은 개발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대상 즉 객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19세기말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한 여성참정권 운동은 여성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 왔고, 세계대전은 군대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도덕과 거부장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과거의 도덕관은 붕괴되었고, 결혼제도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면서 성에 대한 개방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오늘날 환경오염과 자연생태학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했고, 자연과 동일시했던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남성들보다 뛰어난 여성들의 감성과 능력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되었고, 오늘날 이상적인 인간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진 즉 양성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는 성적인 구분 또는 특질들보

6) *ibid.*, p.461.

7) 이선영, *op. cit.*, p.125.

8)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학고재, 1998), p.55.

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더 가치를 두게 될 것이며,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확장하는데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2) 양성성의 특성

성 개념의 붕괴는 20세기 패션에 영향을 미친 큰 흐름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현대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철학사조들을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 성 역할을 결정할 수 없다는 페미니즘의 시각은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불러왔으며 그들이 대안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 앤드로지니는 모든 인간이 양성성을 학습하고 경험해야 함을 부각시켰다. 페미니즘 미술 또한 여성 고유의 감성과 문화가 갖는 힘을 새롭게 재조명하거나 매스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해부하는데 주로 관심을 보이며, 이성애만을 인정하는 기존의 성 정체성과 그에 기반을 둔 도덕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림 5>의 바바라 크루거의 '당신의 육체는 전쟁터다'라는 작품은 오늘날 육체의 위기, 성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신체가 성도덕, 혹은 성 윤리와 관련된 대결에 그치지 않고 양심, 자유, 휴머니즘의 문제가 함께 얽힌 예술적·정치적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기존의 철학적, 정신심리학적, 사회적 개념들, 관습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왔던 고정관념들과 선형적 틀을 와해 혹은 해체하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 신체, 차별성, 시간보다는 공간적, 지역적 가변성과 현재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고 객체가 주체를 대체하는 자아 분열적 징후가 나타나⁹⁾ 이제까지 객체로서 남성의 그늘 아래 종속적 지위에 머물렀던 여성은 오늘날 주체로서 새롭게 대두되었다.

한편 해체주의는 전통이나 말 중심의 밖에서의 파괴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¹⁰⁾으로 남녀 성의 범



<그림 5> 바바라 크루거, 「무제」, 1989.
(20세기의 미술, p.397)

주를 해체하여 제3의 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사조들은 오늘날 양성성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양성성의 특징을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불확정성

성을 구분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서 의심할 바 없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성에 대한 관념은 많이 바뀌었다.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성이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통해 새로운 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남성, 여성이라는 엄격한 성구분에 대한 회의와 함께 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것이란 이제까지의 관념을 깨고 불확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인간의 정체성과 심리적인 내적 상태 뿐만 아니라 외적 현상 내지는 가치를 이항 대립적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적 포용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이전의 모순과 갈등을 새로운 차원의 조화로 이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다.¹¹⁾

이것에 의하면 전근대 사회에서 주종관계에 있었던 남녀성 역시 대립적 위치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

9) 송미숙,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의 문화현상", *미술세계* (1994. 1), p.155.

10) 김성곤 편저,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8), p.22.

11) 이정후,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나 불확정성", *복식* 45호 (1999. 7), p.197.

적 존재로서 성의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양성성에 있어서 불확정성을 나타낸다.

(2) 통합성

통합성은 남녀 성을 별개의 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원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며 포스트모던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자기환원적이라는 모든 성향에서 이탈하여 모든 것이 허용되는 예술로 전환함으로써, 이제까지 사회적으로나 규범에 의해 구분되었던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인간이라는 통합된 시각에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고정적 성 정체화의 대안으로 제기된 심리적 양성성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기존의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주로 남성과 여성이 갖는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한 반면, 양성성 이론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개인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과거의 입장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개념은 일직선상의 양극에 존재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 개인 내에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심리적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성 정체감이 고정된 사람과 비교하여 더 유연한 성도식(gender scheme)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고정된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늘어나는 등 점차 남녀의 역할이 양성적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모두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고정화된 성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양성성을 키워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성성이 지닌 통합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3) 해체성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에 의해 처음 논의된 해체주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마저 해체하여 제3의 성을 제시하는 해체주의적 상상¹²⁾으로까지 발전하였는데, 들뢰즈의 해체적 자율동체 개념은 이를 잘 나타낸다. 그는 개인 속에는 두 성이 공존하며,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적 대상들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이들 두 성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없는 동시에 횡단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교호하기 때문에 한 주체 속에는 하나의 성이 아니고 두 개의 성도 아니며 n개의 성이 존재한다.¹³⁾

페미니즘과의 관련을 보면, 남성우위에 대한 여성론의 저항이 페미니즘인데, 이것은 차이에 기인하며 이 차이는 데리다의 차연으로 귀결된다. 이 해체는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가지며¹⁴⁾, 해체성이 양성성의 중요한 특징임을 보여준다.

III. 20세기 이후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과 상징적 의미

보호라는 원시적 개념에서 시작된 복식은 처음에는 남녀 성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문화가 발전하고 조직이 생겨나면서 장식과 과시라는 다원적인 개념이 생기게 되자 복식에서도 계급이나 신분 및 성의 구별을 요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이러한 성 구분을 해왔는데, 이것은 육체적·기능적 역할의 차이에서 생긴 남녀의 성 차이가 그대로 의복에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남녀 신체적인 차이를 제외한다면 의복은 성을 구분하는 가장 일차적인 시각적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과거 남성의 독점 영역이었던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면서 복식에서 성 구분은 점차 희미해지게 되었다. 남녀간 의복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또는 자신의 성과 상반되는 의복을 착용, 또는 스킨트

12) 이정후, 양숙희, "크로스 드레싱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1997. 11), p.115.

13) 이선영, *op. cit.*, p.130.

14) 김홍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1994. 8), p.165.

와 바지를 함께 착용한다든지 하는 현상은 오늘날 성의 혼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 모호성이 나타나는 복식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세계대전이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여성들을 사회로 불러오는 계기가 있었던 20세기 이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20세기 이후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양성성

20세기 이전에는 중세시대의 성을 은폐하기 위한 의복과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에서 보여지는 여성적인 경향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여성해방운동이 고개를 돌면서 과거 여성의 인체를 구속해왔던 코르셋이나 스커트 비탐대는 사라지고 더 나아가 바지나 재킷과 같은 남성복 아이템들이 여성복에 등장하게 되었다.

복식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성적인 경향은 1860년대 워스의 성공과 이후의 프랑스 남성패션 디자이너들의 성장 이후, 패션이 계급구분의 과시나 여성 허영심의 발현에서가 아니라 성 정치학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기 시작¹⁵⁾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양성성의 모습을 각 시기별 복식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10~1920년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계속된 제1차 세계대전은 군대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져왔고, 이는 여성복에 합리성과 기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가슴을 남작하게 하고 허리곡선을 완화시킨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이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시 스타일을 한 여성들은 플래퍼라고 불리었으며 <그림 6>에서 보듯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유연애를 즐겼으며, 개성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그림 6> 1920년대 스트레이트 실루엣.
(New York Fashion, p.133)

2)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전후 세계경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복식에서도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스타일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림 7>의 마릴린 디트리히는 남성의 양복 차림을 선보였지만 대중적인 유행이 되지는 못했다.

3) 1940년대~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은 밀리터리 룩의 유행을 불러왔



<그림 7> 마릴린 디트리히의 스냅사진, 1932.
(의복과 성, p.205)

15) 앤 홀랜더 저, 채금석 역, 의복과 성 (서울: 경춘사, 1996), p.166.



〈그림 8〉 1940년대 백화점 쇼윈도우.
(*New York Fashion*, p.133)



〈그림 9〉 1960년대 이상적 미의 이상, Twiggy.
(*New York Fashion*, p.210)

고, 특히 여성의 바지 착용이 일반화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영감을 군복에서 찾았는데, 〈그림 8〉의 백화점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남성적인 분위기의 복식은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인해 의복의 기능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브생 로랑은 남성예복인 스모킹과 턱시도 스타일의 여성복을 발표해 하이패션 정장에 도입하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대는 뉴 룩이 유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적인 분위기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4) 1960년대

1960년대는 영 패션이 대두되면서 양성적인 의상 스타일이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유행한 유니섹스 패션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팝 가수들이다. 프린스와 지미 헨드릭스는 프릴이 풍성한 여성스러운 셔츠를 착용하고 공연을 하였으며 이러한 남성의 여성패션화 경향과 함께 여성의 남성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림 9〉의 당시 이상적인 모델이었던 트위기는 보이시한 몸매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였다.

남녀같이 착용하는 유니섹스 스타일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와 광고업자들은 'Dress Alike', 'His and

Hers', 'The Couple look'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¹⁶⁾

5) 1970년대

1970년대 초반 석유과동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를 맞이하였으나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여성들은 활발한 사회진출을 하게 되었다. 당시 디자이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들 커리어 우먼을 위해, 여성복에 남성복 재단법과 이미지를 도입해 페미닌하면서도 남성적인 스타일의 재킷과 팬츠를 선보였다.

한편 하위문화로서 독특한 패션을 구가했던 펑크족들은 기성세대의 가치와 규칙을 파괴하고 혐오감을 주는 불량스러운 스타일을 즐겨하였는데, 〈그림 10〉에서와 같이 가죽점퍼와 팬츠, 군화모양의 부츠, 남녀 모두 검은 색조의 메이크업을 하여 성적으로 혼돈된 양성성의 모습을 보인다.

1970년대 클럽 록의 중심인물인 데이빗 보위 역시 변장이나 댄디즘을 통해 성적으로 모호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했으며, 그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들은 남성의 이미지와 여성의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혼동함으로써 청년의 가치와 의미, 성년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문제삼았다.¹⁷⁾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을 갖고 성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히피는 남녀 모두 인공미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긴 머리에 청바지와 인

16)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34.

17) 덕 헨디지 저, 이동연 역, *하위문화* (서울:현실문화연구, 1998), p.90.



〈그림 10〉 Punk Look.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 3, p.49)



〈그림 11〉 Yamamoto의 Big Look, 1980년대.
(서양복식문화사, p.402)

디언 풍의 자유스러운 옷차림을 즐겨하여 성적으로 모호한 차림을 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뉴웨이브 패션이 유행하면서 남성적인 스타일의 앤드로지니스 룩이 유행하였다.

6) 1980년대~1990년대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가속화되었고, 지구촌 문화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패션이 혼합되고 절충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류와도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

1980년대의 '여성을 위한 남성의 팬츠(His Pants for Her)'는 남성팬츠의 적용을 전형화하였으며 이는 유용성과 실용성 이상으로 앤드로지니 감각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¹⁸⁾ 당시 여성복에 도입된 남성적인 요소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성인남성의 강한 이미지였지만 그 이후 나타나는 경향은 소년처럼 보이는 중성적인 이미지의 스타일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과 자연의 상징적 요소들이 다원주의적 개념과 절충주의 형태로 받아들여졌으며 성에 대한 경계는 더욱 무의미하게 되어갔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런던에서 '섹스(sex)'라는 쇼를 열어 핑크감각의 패션을 선보였으며 그녀 스스로도 발칙적인 옷차림을 하기도 했는데, 〈그림 12〉에서



〈그림 12〉 비비안 웨스트우드, 1980년대 후반.
(The London Fashion Book, p.47)

보듯이 남성스타일의 자켓과 넥타이 차림을 하고, 하의로 단지 성기부분만이 장식되어 있는 팬츠만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여성성 속에 내재해 있는 남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찾아 이성의 의복을 착용하며, 드레스와 화장 같은 여성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크로스 드레서들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과장된 치장을 하는 경향¹⁹⁾을 보인다.

복식에서 양성적 경향은 이성의 복식을 차용하는 경우, 남녀의 복식특성이 혼합된 조형요소와 원리가

18)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1994), p.129.

19) Ruth P. Rubinstein, *Dress codes* (Boulder · San Francisco · Oxford:Westview Press, 1995), p.256.



〈그림 13〉 동성애자들, 1990년대.
(*Fashion Today*, 96. 2, p.40)

차용된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 성 구분을 할 수 있는 모든 성적 특성이 배제된 복식을 착용하여 제3의 성인 중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성의 혼돈되는 개념은 의상에서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 룩, 보더리스 패션²¹⁾ 등으로 표현되어지며 1990년대²²⁾를 특징지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성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였으며, 이분법적인 성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경향은 성적 모호성을 연출하는 복식의 유행을 가져왔다.

2. 복식에서 보여지는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현대에 와서 패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 문화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이 전달하는 스타일은 단순한 양식이나 유행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코드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미디어가 된다.²³⁾ 즉 패션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수많은 집단들은 의사소통을 하며 정체성을 확인해 나간다. 과

거의 패션은 신분사회에서 계급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역할하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신의 자아를 찾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간을 가장 먼저 구별하던 성의 차이는 현대에 와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으며, 미래 사이버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인간으로 진화 발전되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의 모호성은 현대인에게 깊은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양성성을 표현한 패션디자인이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불확정성

인간의 성이 고정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것이라는 시각은 패션에 있어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에서 탈피하여 서로 상반된 요소가 조합된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도록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성복을 차용하며 매니쉬 룩을 정착²⁴⁾시켰으며 이로 인한 성의 혼돈현상은 남녀의 엄격한 성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패션에는 양성적인 인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⁵⁾ 그들은 오늘날의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이 성적 동등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성별에 대한 구분 자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묘한 성적전략으로 간주²⁶⁾하는데, 이는 남녀 성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새롭게 조화된 인간상을 제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불확정성과 관계가 있다.

성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인데, 도착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여성의 얼굴로서, 화장과 숄더 물들은 양성을 모호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화장은 본질적으로 가장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으며, 의복이 육체에 추상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육체를 조각으로

20) 채금석, *op. cit.*, p.54.

21) 보더리스(boardless) 패션: 이너웨어를 아웃웨어로 착용하거나 남녀 성 구분을 없앴으로써 의복에서 전통적으로 구분해왔던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간의 매치,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을 사라지게 하면서 남성의 담배, 턱시도, 안경, 지팡이 등이 여성복에 도입되었다.

22) 손미희, 임영자,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32호 (1997. 5), p.277.

23) 특집 미술과 패션, *월간미술* (1998. 4), p.45.

24) 강정화, 금기숙,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 30호 (1996. 11), p.223.

25) 손미희, 임영자, *op. cit.*, p.280.

26) 정현숙, 정홍숙,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호 (1997. 11), p.240.



〈그림 14〉 모리무라 야수마사, 「제인 폰다 이후」,
(월간미술, 98.4, p.35)

변형시키듯 가면은 얼굴을 가림으로서 인간을 하나의 상상, 신과 같은 존재에 더욱 근접시켜 준다.²⁷⁾

「제인폰다 이후」라는 모리무라 야수마사의 작품 〈그림 14〉는 남성이 여성 무비스타로 변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서구 여배우 분장과 일본풍 배경을 결합시켜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서 혼돈스러운 자아 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남녀 양성이라는 대립된 각각의 개념은 하나의 컨셉으로 나타나면서 부조화의 강한 대비효과를 일으키며 독특하고도 혼돈된 패션으로 나타난다.



〈그림 15〉 Diesel Style Lab, 99-00A/W.
(Collections, Vol. 20, p.191)

〈그림 15〉의 작품은 가면을 써서 얼굴을 가림으로써 남녀성이 확정되기 이전의 모호한 상태를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을 복식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 여성이라는 성 구분의 관점에서 의복의 의미를 찾기 보다 성이 확정되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에서 인간이 누렸던 자유와 해방에 대한 회구를 양성성을 표현한 의복을 통해 나타낸다.

2) 통합성

성적으로 모호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모든 동물이 가진 속성인 암수구별을 부정하며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 여러 제의에서 뿐 아니라 오늘날 패션에도 이러한 양성성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

통합성을 상징하는 패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별개의 성이면서 통합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너스의 개념을 포함한 더 큰 개념으로 나타난다.

폼프테 가르송은 이러한 디자인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그는 여성이 입어야 하는 옷, 남성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옷안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성의 특징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그림 16〉에서 처럼



〈그림 16〉 Comme des Garçons, 98S/SW.
(Fashion News, p.39)

27) 강재영, "미술과 담론, Pierre Molinier-도착과 성스러움의 사이에서", 한국문연 (1997. 6), p.58.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98A/W.
(MODAIV, N.103, p.174)

남성적인 라인의 디테일이 첨가된 재킷과 바지에 여성스런 실루엣의 프릴과 레이스가 있는 블라우스를 함께 배치하거나, 남성적 슈트에 주름이 고르게 잡힌 아름다운 실루엣의 스커트를 입혀 여성스러움을 간접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남성미를 함께 만족시켜주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장 폴 고티에는 〈그림 17〉에서 보듯이 남성정장의 재킷에 스커트와 쇼울을 걸쳐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복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성 구분에 따른 고정된 의복 규범을 파괴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개성 추구 경향에 따른 것으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규범과 고정화되어 있던 양식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며, 이로 인해 개개인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새로운 개념과 방식에 따라 의복을 착용한다. 속옷의 길 옷화, 소재선택에 있어서 동질적인 요소를 매치시키던 것에서 벗어나 상반된 느낌의 이질적인 소재를 하나의 디자인, 하나의 옷에 조합시키는 것 등은 복식에 대한 정형화된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측면에서 고정된 관념과 편견을 파기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것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녀 양성을 통합적으로 볼 것을 의미한다.

3) 해체성

남녀 성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제3의 성을 주장

하는 해체성은 복식에서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디자인 요소가 매제된 독특한 분위기로 나타난다. 이는 의복의 개념을 해체하여 어떤 정형화된 옷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신체를 감싸는 형태로서 소매나 바지의 역할은 무시되고, 착용자의 가치관이나 이상, 기호에 따라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스타일의 복식을 추구한다.

이것은 틀에 박힌 사고개념 자체를 부정하며 최근 새로이 등장한 해체주의 계열의 패션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남녀 성을 해체한 패션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성에 대한 구분을 초월한 젠더리스 룩의 형태로 보여진다.



〈그림 18〉 Hussein Chalayan, 98S/S.
(Gap Collections, Vol.13, p.140)



〈그림 19〉 Acid Koji Tachiyama, 99.7.
(Fashion News, Vol. 55)

〈그림 18〉은 인간신체의 외형적인 형태를 해체하여 몸통과 소매를 하나로 결합한 기형적인 형태의 라인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는 어떠한 특징도 배제한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19〉의 검은색 점퍼슈트 역시 성적인 특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만 몸의 앞 중심에 둥근 원 형태의 트임을 두어 성적인 구분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해체성은 이분법적인 성에 대한 관념과 의복의 기능을 해체하여 원초적 상태에서 인간 본연의 존재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오늘날의 비인간화 현상 속에서 새로운 존재 형태를 제시해 준다.

IV. 결 론

인간은 오랫동안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의에 구속되어 왔고 이러한 구속은 복식에 의해 강화되어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들에 박힌 성 개념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 패션, 영화, 광고에 이르는 문화의 영역은 큰 변화를 겪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성에 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보다는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이 앞서게 되고 패션에 있어서도 양성성을 표방한 디자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성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변혁의 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성표현의 수단이며 패션에 있어 표현의 다양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양성성과 이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문화적, 복식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양성성에 대한 어원적 관점과 출현배경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고찰해 본 결과 양성성은 고대부터 있어온 개념으로 각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현재까지 존속해왔다. 특히 19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과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의 사조들은 오늘날 양성성의 출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양성성을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특징지었다.

둘째로, 복식사적으로 살펴볼 때 20세기 전에는 복식을 통해 성을 강조 또는 억압하면서 복식의 기능을 주로 성 구분에 두었으나, 20세기 이후에는 이

분법적인 성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양성성이 혼재하거나 교차하는 경향을 보이며 성적 모호성을 연출하는 복식 유행을 가져왔다. 이처럼 남녀의 스타일이 서로 교류되면서 성적 특성이 소멸되거나 중성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적 특성의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외형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 내재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셋째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를 불확정성, 통합성, 해체성으로 구분할 때, 먼저 불확정성은 인간의 성이 고정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것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적인 성 구분을 하기에 앞서 양성을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뜻하며, 복식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디자인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통합성은 성에 대한 정형화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패션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대립관계에 있는 양성의 특징적인 디자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여준다.

해체성은 이분법적인 성에 대한 관념과 의복의 기능을 해체하여 원초적 상태에서 인간 본연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면을 부정하고 인간신체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성성을 표현한 복식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의미하며, 고정관념과 기성세대에 의해 확립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새로운 이상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녀 두 성은 서로 상반된 대립된 개체가 아니며, 양성성이 서로 상호보완해줄 때 훨씬 더 나은 인간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 속에 내재된 또 다른 성의 표출은 이상적 신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성 개념의 붕괴는 지난 20세기 패션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흐름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우리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영 (1997). 미술과 달론, Pierre Molinier-도착과 성스러움의 사이에서, 한국문연, 6월 여름호.
- 강정화, 금기숙 (1996).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 30호, pp.211-225.
-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혜경, 임영자 (1998).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호, pp.137-149.
- 김홍희 (199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8월호, pp.165-170.
- 덕 헵디지 저, 이동연 역 (1998). *하위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 손미희, 임영자 (1997).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32호, pp.261-282.
- 송미숙 (1994).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의 문화현상, 미술세계, 1월호, pp.149-157.
- Alison Lurie 저, 유태순 역 (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 앤 홀랜더 저, 채금석 역 (1996). *의복과 성*, 서울:경춘사.
- 이거룡 외 (1999).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서울: 한길사.
- 이선영 (1999). 조형적 성·양성 이미지, 미술세계, 10월호, pp.124-130.
- 이정후, 양숙희 (1997). 크로스 드레싱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pp.111-134.
- 이정후, 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나 불확정성, 복식, 45호, pp.179-199.
- 이주현 (1998).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 학고재.
- 정현숙, 정홍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호, pp.231-252.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진쿠퍼 저, 이윤기 옮김 (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까치.
- 채금석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pp.37-56.
- 최병광 (1999). 광고, 20세기 인간을 비추는 거울-남자? 여자? No!, *LG패션 유 앤드 아이*, 여름호 통권 30호, pp.26-29.
- Anthony Synnott, *The Body Social*, London:ROUTLEDGE.
- Craik, Jennifer (1994). *The Face of Fashion*, London and NewYork:Rouledge.
- McJimsey, Harriet T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Iowa State University Press.
- Rubinstein, Ruth P. (1995). *Dress codes*, Boulder · San Francisco · Oxford:Westview Press.